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11월 22일 (제138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칼럼

안보와 건강이 제일!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산해진미를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하고, 천하의 명승지를 두고도 구경하지 못하며, 호화로운 집을 두고 병상에 누워 있다면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건강 없는 재물은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듯이,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재물도 그와 같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16:26)라고 일찍이 말씀하셨다.

개인에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면 국가에는 안보가 최우선이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져도 나라를 지킬 힘이 없다면 그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안보 없는 경제성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인지라,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해 보여도 비바람에 쉽게 무너지고 만다.

성경은 "너희가 전쟁할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21:31)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해야 할 일은 꼭 하라.'는 뜻이다.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다. 준비하라는 것이다.

느헤미야를 보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원수들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숫군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느4:9).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은 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튼튼한 안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안보 체계를 갖추고, 그 위에 번영을 쌓아야 한다.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때에 따라 보약도 챙겨야 건강할 수 있다.

건강을 잃으면 재물이 무용지물이 되고, 안보를 잃으면 순간 풍비박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건강을 세우고, 나라의 번영을 이루기 전에 평화를 지킬 힘을 갖추자. 튼튼한 안보 위에 번영이 있고, 건강한 몸 위에 행복이 있다.

내 삶은 내 생각과 내 말이 만든 작품이다

"거울을 보고 말해보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행동한 그대로 되돌려준다."

목사님이 이번 추계산상집회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주제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나 행동은 조금의 가감도 없이 동일하게 반사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말이나 행동 역시, 마치 땅에 뿌린 씨앗이 자라 열매를 내듯,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잠언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수많은 어제들이 모여서, 우리의 수많은 어제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가시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얻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7:16~18).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생각과 말이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쏟아부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두령들 중에 열 지파의 두령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두려워 떨게 하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자 스스로 맹세까지 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돌려주시겠다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말은 우리 생각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아무리 물을 줘봐야 더 썩을 뿐입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생각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녹슬었는데 아무리 맑은 생수를 흘려보낸다고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7~8).

그래서 나는 부정의 말을 내 자신에게도 일절 용납하지 않을뿐더러 그런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과는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내 목회 초기에 입에 작은 조약돌을 물고 다니며 내 입을 통제하려 했고, 소형 녹음기를 가슴에 넣고 내가 도대체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는지 점검했겠습니까? 왜냐? 나도 젊을 때는 혈기가 많아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고(약3:2), 심지어 우리 혀를 큰 배를 움직이는 키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사공이 작은 키로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 혀가, 우리 입술이, 우리 말이 우리 인생을 조종하는 키라 이 말입니다. 잠언에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혀를 쓴 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고 경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

나는 화가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생각하고 붓질한 대로 색깔이 나오고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미술관을 다니며 수많은 명작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명작들도 그 작가의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생각이 있으셨고, 그 생각대로 말씀하사 천지를 이루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생각이 설계사라면, 말은 설계한 대로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어떤 설계로 어떤 집을 건축하렵니까? 긍정의 생각, 감사의 말로 여러분 인생을 감사와 축복의 열매로 가득한 명작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2026 추계산상집회 광경(11월 9일~12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
문의 :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살전5:18)

감사는 사막에 단비를 내리고 죽음도 피해간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범사(凡事)'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겁니다. '범사'란 모든 일,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좋고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범사'란 감사가 나오지 않을 상황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기쁘고 좋을 때 감사하지 않는 자는 없거든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상황에서 감사하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사막에 단비가 내리고, 죽음도 피해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고, 안 되던 것이 되고, 안 풀리던 것이 풀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놓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삶에 장애물을 없게 한다

정말 그런지 볼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백성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군사들보다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대하20:21)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륙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대하20:22~24).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도 할까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행16:25). 그러자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아들 압살롬을 피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라고 감사했고, 바울 역시 그가 주리고 헐벗고 매 맞으며 세상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늘 감사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 42년, 저도 정말 억울한 일도 많았고 누명도 많이 썼지만,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를 교구화하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50:23). 아멘!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꽃길을 걸으려면 꽃씨를 뿌려야 하는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명의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느낄 감(感), 사례할 사(謝)거든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베푼 은혜를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육체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온데간데없는 그 아홉 명 가운데 한 명이 여러분은 아닐까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감사를 모르는 자 말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중심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나사로를 살렸듯이, 여러분의 감사기도가 죽은 삶, 죽은 가정, 죽은 사업, 죽은 육체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수직적 감사라면, 이제 수평적 감사를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수평적 감사의 첫째 대상은 부모입니다. 요즘 효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어느 부모가 아들에게 보낸 글을 읽고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너희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는 산책시킨다고 매일 데리고 나가면서, 개 옷은 이것저것 사면서, 개는 유기농 음식 먹이면서 부모에게는 어림없습니다. 개똥은 치우면서 부모가 병들어 똥오줌 못 가리면 요양원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들은 금수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며 키워주신 부모에게 감사해야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함이 마땅할진대 감사하면 하나님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3)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내에게도 "힘들지? 고마워."라고 해보세요. 남편에게도 "돈 버느라 애쓰네."라고 해보세요. 애들에게도 "고맙다. 잘 커줘서." 해보세요. 아랫사람에게도 감사한다고 해보세요.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롬16:3~4)며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굳이 말로?", 아니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직적, 수평적 감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충만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5:17~20).

감사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수직적, 수평적 감사가 이뤄질 때 온전한 영성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 금수만도 못한 자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감사를 주실 것이고, 사막 같은 길에서도 감사하면 사막에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막에도 물만 있으면 유실수에서 열매를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룹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136:1~2). 할렐루야!

:: 객원칼럼 ::

AI 패권과 리더십

2024년 미국 대선 직후, 저명한 벤처투자자 마크 앤드리슨과 일론 머스크 등이 팟캐스트와 폴리티코를 통해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억만장자 부유세와 암호화폐 규제는 물론 AI 산업을 2~3개의 소수 대형 기업 위주로 재편하려 하며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만류했다고 폭로하면서 실리콘밸리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이에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술 주도권과 규제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자본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대표이사와 엔비디아의 전 대표이사 젠슨 황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충돌한 대립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양측 갈등의 핵심은 '개방이냐, 폐쇄냐'에 있는데, 엔비디아는 AI 칩과 전 세계 6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사용하는 '쿠다(CUDA)'라는 운용 소프트웨어를 번들(묶음)로 공급하고 있기에 젠슨 황은 핵심 소스를 개방할수록 최종 사용자와 개발자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자사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를 감안해 소스 공개를 적극 지원해온 반면, 아모데이 대표이사는 소스를 철저히 폐쇄해야만 AI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제와 도덕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세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첨단 AI 칩의 대중국 수출까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사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계장치나 설비, 군수물자, 특히 첨단 무기와 전투기를 판매할 때도 표준화된 운용 기술 외에 핵심 원천 기술의 이전에는 매우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엑셀 같은 대형 상용 플랫폼들이 핵심 코드를 개방하지 않고 시장을 지배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형 AI 플랫폼 기업들이 동일한 폐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신흥 테크 기업들은 개방된 환경 속 치열한 자유 경쟁을 추구한 반면, 기존의 초당적 기득권 세력은 전통적인 통제 방침을 고수하고자 하였고, 결국 지난 11월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 하원을 석권하며 워싱턴의 권력 지형이 뒤바뀌는 격변 속에서, 뚜렷한 비전과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가졌음에도 내면의 도덕적, 구조적 기반이 취약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전 대표이사는 불거진 스캔들과 함께 예상보다 쉽게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42년간 온갖 근거 없는 모략과 모함, 질시와 배척, 그리고 수많은 함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늘에 이르신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Tom Lim

:: 책을 펴다 ::

우리, 하나 됩시다

샴쌍둥이가 한 사람인가, 아니면 별개의 두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 탈무드에는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말한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 이때 다른 머리가 소리를 지르면 한 사람인 것이고, 반응이 없다면 두 사람인 것이다."

이 방법으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낸단다. 유대인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면 그를 유대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군대 얘기하면 눈에 불을 켜고 얘기하는 사람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다. 그런데 군대 얘기에 시큰둥해하는 사람은 분명히 안 다녀온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일까? 누군가 아파할 때 같이 아프고,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고, 누군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맘껏 기뻐하고 축하한다면 분명 우리는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 또 주님의 아픔이 가슴 절절히 전해오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자는 주님의 형제요, 주님과 하나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됨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의 보혈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신다.

"누가 내 부모이고, 누가 내 형제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막 3:35).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듣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년 4월, 신영심 편집국장님을 사석에서 잠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 신문에 관해 궁금했던 것들을 여쭤보던 중, 어느 목사님의 신문 기고에 관한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문 마감을 두 시간 앞둔 어느 날, 총회장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에게 글을 다시 쓰도록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으신 목사님은 두말없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바쁜 일정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마감까지 두 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 '어렵겠다'고 말씀하실 법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핑계나 변명도 없이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셨고, 마감 시간 안에 글을 다시 작성해 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양심에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 신문에 글을 쓴 지 3년밖에 안 된 풋내기였던 제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원고를 쓰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거나, 일정이 겹친다는 핑계로 여러 차례 마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부탁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이 가증스럽게 느껴져, 회복된 후에 쓰겠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럴듯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순종을 통해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지장이 없도록 영·혼·육을 관리하자!'

그렇게 핑계와 변명을 내려놓고 저 자신을 바꾸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몸을 관리하기 시작하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 금식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한 결과, 제 신앙 또한 견고해졌습니다.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자, 지난 1년 반 동안 빠짐없이 신문에 글을 기고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핑계 대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게으른 자들은 핑계를 잘 댄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다."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저축해야지!' 지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실천이 쌓여 훗날 후회 없는 삶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김진실 사모

:: 낮은 울타리 ::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부자가 되는 것, 내 몸이 치유되는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복을 받은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야곱,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 고통받던 병에서 해방된 나아만 장군.

저 또한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받고 싶은 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제가 하는 일이 잘되는 것, 저와 가족이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제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경험했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복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쯤, 고난과 나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는 것 말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보기에 좋은 떡을 보여 주며 유혹했듯이, 눈에 보기 좋은 복은 나를 넓은 길로 가도록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가끔은 신앙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저에게 근심이 찾아오고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가 찾아왔으니 말입니다. 우리 삶은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데 써야 합니다. 우리 삶은 결국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붙잡히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실 것입니다(마6:33).

장수정 성도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억지로 한 만큼 실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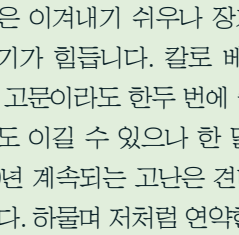
운전면허를 서랍에 고이 모셔둔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길치에, 방향치인 제가 복잡하고 과격한 서울 시내를 운전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죠. 집에서 회사까지는 지하철로 세 정거장이고, 교회도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이면 가니까 굳이 차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모시고 어딜 가려면 아무래도 운전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차를 구매해 하루 두 시간씩 총 다섯 번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 베스트 드라이버인 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연습했죠. 내일부터는 '혼자서' 운전해보라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처음으로 동네 수영장까지 운전해서 간 날, 어찌나 떨리던지요. 다음 날엔 출근하기 전 새벽 여섯 시에 나가 이태원에 있는 회사를 거쳐 현충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연수 첫째 날의 코스대로요. 그런데 웬걸, 이태원에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고, 심장이 급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대로 포기하면 경로를 이탈할 때마다 중도에 집으로 갈 게 뻔해서 저 자신을 어르고 달래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새로운 길을 따라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거대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 우측에서 바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덜컹거리더군요. 옆에 있던 배송 트럭에 제 차 오른쪽이 쫘아아악 긁힌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무섭던지요. 갓길에 서지 않는 트럭을 쫓다가 오전 회의에 늦을 거 같아 일단 신당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험난한 모험이 시작됐죠. 경로를 이탈해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갔다가 집에 거의 다 와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지 못해 동호대교를 건너 압구정까지 갔다가 고가도로로 진입하지 못해 돌고 또 돌고. 이십 분 걸리는 길을 한 시간 반 만에 도착했을 땐 온몸이 극기 훈련을 마친 것처럼 너덜너덜했어요. 내가 왜 운전을 한다고 했을까. 엉엉엉.

다음 날, 운전대를 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초보운전 영상이 뜨더라고요. "운전은 재능보다 억지로 나간 횟수입니다.", "안 나가면 평생 못함." 저는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운 마음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를 수리한 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억지로' 운전했어요.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긴 오는 건지 막막하기만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연습뿐이기에 조금씩 거리를 늘려 2km 떨어진 수영장까지, 3km 떨어진 이마트까지, 4km 떨어진 회사까지, 6km 떨어진 용산구청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16km 떨어진 노량진 교육관까지, 24km 떨어진 KBS스포츠월드까지, 33km 떨어진 부모님 댁까지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125km 거리의 충남 예산까지 운전해 외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운전이 재밌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어쩌겠어요. 운전한 지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도 초보운전 스티커를 3개나 붙이고 다닙니다만, 마음은 이전보다 한결 편해졌어요. 운전이 즐겁게 느껴지는 기적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순전히 '매일, 억지로'의 힘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도, 공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봉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일도 누군가에겐 힘에 부칠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 해봅니다. 그 시간이 모여 저절로 편해지고 즐거워지는 날이 올 테니 말이죠.

신은혜 성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세상은 내 앞의 거울과 같다
뿌린 대로 나에게 돌아오더라
세상사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붕우

:: 한국 교회사 ::

일사각오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 2

1939년 2월, 2차 구속 후 잠시 석방되었을 때 주 목사는 마지막 설교로 '다섯 종목 나의 기도'를 산정현교회에서 2,000여 명의 교인과 일제 고등계 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행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7개월 동안 저는 5종목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다고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에, 스데반은 그 젊음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은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주어지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나에게는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와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 태어나 자식의 의무도 중요하고,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의 아비가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을, 불안해하는 양 떼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간을 얽어맨 인정의 줄이 나를 얽어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나 처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합당치 않다 하셨으니 저로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님 안에서 자랐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열 번, 백 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목사가 되어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죽음을 피하려 하겠습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의를 버리고, 예수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짐승의 삶만 같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 옥중이나 사형장에서 저의 목숨이 끊어질 때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저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눈물바다를 이룬 산정현 예배당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앞잡이로 손가락질받던 조선 형사들까지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주 목사는 다시 구속되었고, 일제의 압력에 굴복한 장로교 평양노회로부터 목사직이 면직됐으며, 산정현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면회를 온 가족과 교인들에게 오히려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나는 머지않아 주님 앞으로 갈 것이오. 아! 어머님이 보고 싶소. 불쌍한 어머님을 내 대신 잘 모셔주시오. 어린 자식들을 잘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조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교회에게 내 말을 전해 주시오. 여보, 나를 웅천으로 가져가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시오."

그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목사님은 쓰러졌고, 간수들은 황급하게 목사님의 몸을 양편으로 붙들었습니다. 끌려가시던 목사님이 뒤돌아보며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하시며 진한 여운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오사모는 그 밤을 혼자 엎드려 한없이 울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과 혹독한 고문으로 육체가 완전히 쇠약해진 그는 결국 조국의 광복을 불과 1년 남짓 앞둔 1944년 4월 21일 밤 9시, 평양 형무소 병사에서 48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내 영혼의 주님을 뵈옵고자 합니다."였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삶과 순교는 한국 교회사에서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정통 신앙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체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一死覺悟)만 있을 뿐입니다."

김종춘 목사